



‘서해수호의 날’ 손도장 태극기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손도장 태극 문양 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군장병들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조영권 기자

‘네거티브 격화’...유권자 피로도 가중

6·3 지방선거 D-68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4월3-5일)을 앞두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은 등한시한 채 상대방 흡집내기 등 네거티브전에 몰두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장의 비전과 민생 해법을 놓고 경쟁해야 할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과거 이력 공방에 집중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승리에 급급한 혼탁·과열이 결국 사실상의 ‘내부 총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기호 1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기호 2번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기호 4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5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6번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진정성, 선거운동 방식 등을 정면으로 겨

민주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일주일 앞 자질검증 명목 비방·비난 난무 ‘눈살’ 승리에만 급급한 사실상 ‘내부 총질’ ‘특별시 미래 그릴 정책대결 나서라’ 오늘부터 3일간 권역별 토론회 주목

남하며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렸다.

강기정 후보는 민형배 후보를 향해 광산구청장 시절 비서실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을 다시 꺼내 들며 “지난번에 비서실장 얘기를 여쭙더니 민 후보가 ‘10년 전 일을 왜 묻느냐.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는데 그 비서실장이 최근까지 민의원의 4급 보좌관이자 광산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까지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공공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이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800만원,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사람을 4급 보좌

관, 사무국장으로 쓰나, 이게 개인의 일탈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민 후보는 “공무원 임용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임용한 것”이라며 “당시 이명박 정권이 저를 뒷조사하고 탄압하던 시절이다.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고 제가 사찰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토론회 이튿날인 26일 성명을 내 “해당 비리는 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MB정권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TV 토론이라는 공식 자리에서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신정훈 후보도 민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예비경선 통과 이후 과거 실시된 여론조사 수치를 적시해 배포한 카드뉴스 문제를 직격했다.

신 후보는 “(카드뉴스에 적시된) 이 숫자를 보면 누구나 ‘선거 다 끝났네. 민형배 후보 찍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대세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캠프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후보가 용인한 실수라면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압박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변은진 기자

민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기호 4번 주철현 ▶5면

“반갑다 야구야”...KIA, 명예회복 주목

내일 SSG와 원정 개막전...내일 선발



겨울을 지나, 다시 야구다. 파스한 봄기운과 함께 2026 프로야구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45번째 시즌을 맞는 KBO 리그는 오는 28일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팀당 144경기의 장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즌 초반 성적이 순위 경쟁의 방향을 가를 수 있는 만큼 개막 시리즈부터 치열한 승부예상된다. ▶관련기사 16면

개막 2연전에서는 KIA와 SSG(문학), KT와 LG(잠실), 롯데와 삼성(대구), 두산과 NC(창원), 키움과 한화(대전)가 각각 맞대결을 펼친다. 2024년 우승한 뒤 지난해 8위로 롤러코스터를

탄 KIA 타이거즈는 이범호 감독 체제 3년 차를 맞아 명예 회복에 나선다.

올 시즌은 최형우·박찬호의 이적으로 생긴 공백이 작지 않다. KIA는 새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젊은 선수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타선 보강 카드인 카스트로는 공격의 무게감을 좌우할 변수다. 장타 생산력과 함께, 찬스 해결 능력까지 요구된다. 유격수 데일은 내야 수비의 중심을 맡는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실책을 줄이고 기본적인 공격 기여가 필요하다.

‘간판 타자’ 김도영의 역할도 크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WBC 활약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였다. 건강하게 한 해를 치를 경우 공격을 이끄는 중심 축이 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주홍철 기자

알림



전남광주특별시 ‘가족사랑 걷기대회’

4월4일(토) 오전 8시30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하는 ‘제26회 전남광주특별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를 오는 4월4일(토)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걷기대회는 심혈관과 심폐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울증·스트레스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광주천변 일원 A그룹(7km)과 B그룹(5km) 코스로 걷습니다.

건강걷기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양한 부대행사 뿐만 아니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합니다. 상쾌한 봄기운을 느끼면서 힐링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걷기대회에 애독자 및 사·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6년 4월4일(토) 오전 8시30분~낮 12시
- 장 소: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 접수 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사전 접수
- 참가 문의: 광주매일신문(062-650-2079)
- 참가비: 무료
-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S-CLASS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